

경북매일

홍성식 기자



1988년. 만17세 철없는 고교생과 37세 젊은 영어교사로 만난 우리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세월은 무심해 제자의 흰 머리칼이 더 많아져 있었다. 이게 '스승' 안중복과 '제자' 홍성식이 나란히 카메라에 포착된 유일한 사진이다.

스승과 취재원 사이

너나없이 누구에게나 마음 속 '큰 스승'이 한 명쯤은 있다.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닌, 사람이 살아야 할 옳은 길을 가르친. 내게도 꼭 한 명 그런 스승이 있다. 아래는 그와의 만남을 기억하고자 하는 열망과 동시에 '사표(師表) 없는 시대 사표'로 불려도 하등 부끄러울 것 없는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그는 내가 소년이었을 땐 '언론'의 중요성을 가르친 선생이었고, 나중에는 기자가 된 나의 귀한 취재원이 됐던 사람이다.

1. 신문을 펴며 '모의 청문회'를 열어 보자던 영어 교사

내게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아닌 '5공 비리 청문회'와 '광주항쟁 청문회'가 있었던 해로 기억된다.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내게 서른여덟 젊은 영어 교사 안중복은 특이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수업시간에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모의 청문회'를 해보자고 한다거나, 그해 백담사로 유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째서 지탄받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던 교사. 당시는 군사독재의 어두운 그들이 채 견히지 않았던 시절. 당연지사 안 교사와 같은 선생은 드물었다. 대부분

의 교사들이 두려움에 어깨를 움츠리던 시절.

친구들 앞에 나서기 좋아했던 내가 그의 눈에 띄었다. 완연했던 가을날. 그의 집까지 따라가 사모님과 스승의 아이들 셋을 만났다. 그날, 돼지고기 수육을 얻어 먹으며 소주까지 한잔 얻어 마신 것으로 기억된다. 귀가하는 내 손엔 스승이 건넨 책 몇 권이 들려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만든 <광주항쟁 사진집>, 거름 출판사가 낸 <들어라 역사의 외침>, 백산서당이 출간한 <철학의 기초이론>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듬해인 1989년. 언필칭 ‘전교조 사태’가 일어났다. 어제까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적지 않은 수의 교사들이 노태우정권의 결정에 의해 하루아침에 해직됐다. 겨우 열일곱, 열여덟이던 아이들이 무얼 알았을까? 그러나, 스승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학생들은 교실 창밖으로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눈물을 흘렸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아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보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안종복 역시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가 학교를 구둑발로 짓이기고 다니던 정보과 형사에게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저항하던 선생이었다는 사

실은 얼마 전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 씨에게 전해 들었다.

안종복은 ‘전교조 사태’로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았던 경남 지역의 교사 2명 중 1명이었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암기과목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가 아닌, “불의 앞에 앞드리는 삶은 아름다울 수 없다”고 말해주던 희귀한 스승. 그러나, 당시의 나는 철이 없었다. 1990년 대학에 들어간 나는 안종복을 잊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다.

2. 박봉을 쪼개 노동일보에 기부금 낸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1999년 직장을 가지게 됐다. 노동운동가 이태복(1950~2021)이 만들던 주간 <노동자신문>이 일간 <노동일보>로 제호와 발행 방식을 바꾼 해. 그 신문사 수습기자가 됐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어느 아침. 신문을 펼치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게 누구더라? 안종복 선생이었다. 6년간의 해직기간을 거쳐 복직한 그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중학교 교사로 다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일보>는 창간지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지면에 싣고 있었는데, 얼핏 봐도 적지 않은 기부금을 낸

그의 사진과 이름, 직장명이 고스란히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과 타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그가 재직하던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물었다.

“11년 전 안종복 선생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열흘 후쯤. 우리는 서울의 한 메밀국수집에 마주 앉았다. 메밀국수는 고등학생이던 나와 30대 청년이던 선생이 더불어 좋아하던 메뉴였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그러나, 선생의 눈빛은 아직 <초한지> 속 항우처럼 형형했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저음의 목소리 또한 여전했다. 어느새 내 나이는 스물아홉, 스승은 지천명을 목전에 둔 마흔아홉이 돼 있었다.

“어떤 큰 신문사보다 <노동일보> 기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스승의 치하(致賀)에 잠시 부끄러웠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스승 앞에 제자는 “제 능력과 재주로는 이 조그만 신문사에 오기도 힘들었습니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고교시절처럼 숨어서 마실 필요도

없었다. 안종복 선생과 마신 그날의 소주, 것처럼 술이 달콤했던 밤이 이전에 또 있었는가? 그러나, 먹고사는 것에 급급해 일에 쫓기던 나와 전교조의 중진교사로 후배 교사들의 어려움까지 챙기느라 바빴던 스승은 또 그렇게 소원해져 갔다. 그랬다. 세월은 언제나 무심했다.

3. 병약해진 스승과 흰 머리칼 돌아난 제자

다시 16년이 흘렀다. 통상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 그동안 당연지사 여러 곡절이 내게도 있었다. <노동일보>를 나와, 창간을 준비하던 <오마이뉴스>에 들어가 8년10개월을 일했고, 이후엔 퇴직금과 전세금을 털어 10개월쯤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20여 개 나라를 떠돌며 ‘나 홀로 세계여행자’로 살기도 했다.

몇 권의 책을 냈지만, 결국 ‘전망 없는 삼류작가’가 된 마흔다섯 내 머리칼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카가 흰머리를 뽑아주고 용돈을 받겠다고 나서니 엄마가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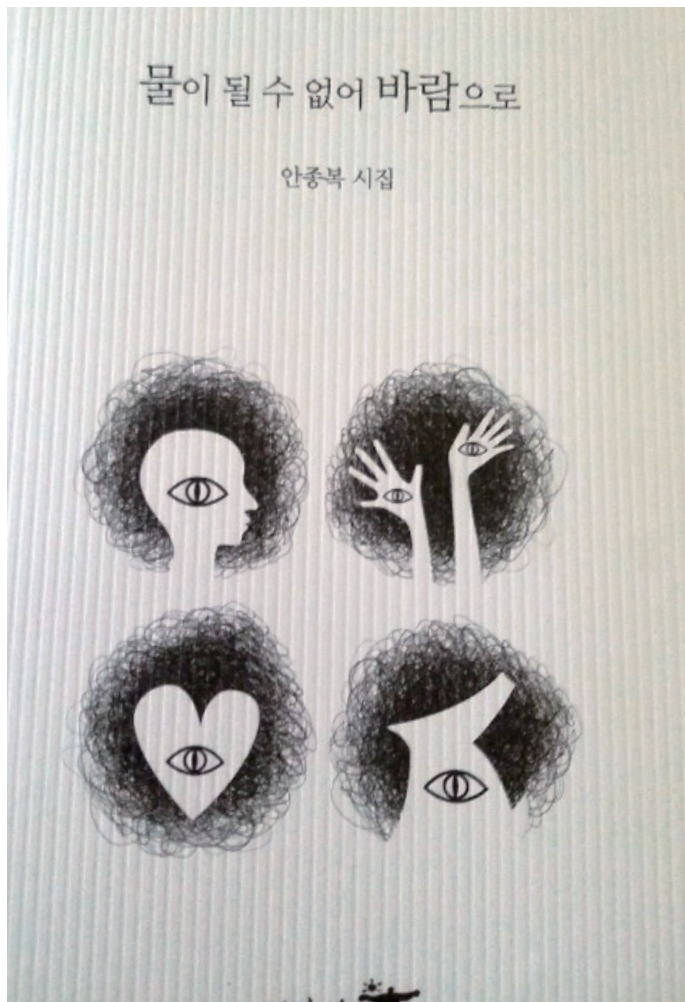
“흰 머리칼 다 뽑으면 큰아빠 대머리 된다.”

2015년 가을. 경북 포항에 위치한

〈경북매일〉 기자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무엇에 홀린 듯 안종복 선생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나와 그는 딱 20살 터울이 진다. 그렇다면 그는 정년퇴직을 했을 테고, 교단을 떠났을 것이다. 전교조 경상남도 지부에 전화를 넣었다. 그리고, 3~4분간 스승과 나의 지난 사연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수화기를 든 상대방은 선선히 선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긴 세월이 무색하게 단 5분 만에 통화가 이뤄졌다. 천우신조였을까? 다행히 선생은 그날 내가 머문 도시에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열린 ‘시인 이선관 전집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짧았던 늦가을 해가 떨어질 무렵, 스승을 찾아 행사장으로 갔다. 중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상스레 가슴이 설렘다.

어두컴컴한 건물의 2층 복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조그만 선생이 덩치 큰 나를 먼저 끌어안았다. 갑상선과 위장을 크게 앓았다는 그의 머리칼은 눈에 띄게 숱이 줄었고, 안아본 어깨뼈는 앙상했다. 서른여덟의 젊은 스승을 기억하는 나는 울컥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그런데도, 선생은 제자 걱정이 먼저다.



성실한 영어교사이면서 문장도 좋았던 안종복의 시집 〈물이 될 수 없어 바람으로〉. 출간 기념행사에서 나는 사회를 맡았다.

“야, 너는 젊은 녀석이 머리칼이 왜 그러냐?” 나의 봉두난발을 책한 것이다.

나빠진 건강 탓에 술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스승은 뜨거운 레몬차를 마셨

고, 그 앞에서 혼자 소주잔을 들 수 없어나도 커피를 마셨다.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동분서주하는 선생은 ‘창원미래연구소 이사장 안종복’이라 적힌 명함을 내게 건넸다. 지역에서 진보적 정치인을 양성하고, 시민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단체라고 했다.

바닷가에 접한 카페 밖으로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돌아보니, 그와 서울에서 권커니 잣거니 소주를 마셨던 날로부터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있었다. 그날 역시 스승은 그다지 자랑스러울 리 없는 제자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애썼고, 나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처지가 부끄러워 내저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시집 출간하고 마침내 내 취재원이 된 스승

2015년 이후 간간히 만남을 이어오던 나와 안종복 선생. 2018년엔 다소 의외의 전화를 받았다. “홍 기자, 내가 시집을 냈다. 해설을 맡아다오.” 인품 이상으로 문장이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안종복의 시집 출간은 예상하지 못한 다소 놀라운 이벤트였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쌓아온 30년의 정이 있으니 스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스승의 겸손과 겸양을 알고 있는 나는 건인불발 했던 안종복 선생의 용기와 깊이를 짐작하기 힘든 평등의식이 저항과 극복의 삶을 통해 체득됐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집 해설을 썼다. 제자가 스승의 문장을 평한다는 건 주제 넘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출간 몇 개월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안종복 시집 〈물이 될 수 없어 바람으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당연지사 행사장을 찾았다. 처음 봤을 땐 젖먹이였던 막내아들이 훌쩍 큰 키의 공인회계사가 돼 있었다. 두 딸 역시 교사로, 해외 자원봉사자로 제 몫의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보기 좋았다.

그날 나는 이런 말을 했다. 1988년 스승에서 2018년엔 취재원으로 존재를 전이한 스승 안종복의 자식들에게.

“자네들의 아버지는 용기와 평등을 가르친 스승으로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아버지 안종복을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